

배우 서현진 “오수재”, 좀 내려놓고 덜 치열했으면해”

SBS 금토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 경신
최종회 시청률 전국 10.7% 자체 최고 기록, ‘유종의 미’ 거둬

“오수재”가 살았으면 하는 삶은 있다. 좀 내려놓고 덜 치열하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배우 서현진이 SBS TV 금토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연출 박수진·김지연, 극본 김지은, 제작 스튜디오·S·보미미디어)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호평을 들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왜 오수재인가’ 최종회인 16회 시청률은 전국 10.7%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기록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왜 오수재인가’는 잘못된 성공을 꿈꾸는 오수재의 지독하리만치 치열한 이야기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초반에 흑화한 서현진의 열연으로 파죽지세였다. 하지만 이후 작위적인 연출과 러브 라인이 강조되면서 뒷심이 달랐다. 그럼에도 서현진 연기에 대한 호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여성 원톱물’의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라는 평도 나왔다.

서현진은 24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을 통

해 “왜 오수재인가”는 현장에 대해 많이 배우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해 준 작품”이라고 말했다.

서현진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잘못된 성공을 꿈꿨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오수재의 복합적인 감정의 결을 잘 살려냈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이전까지 주로 밝은 캐릭터를 보여준 그녀가 독하고 냉철한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점도 화제였다. ‘서현진 연기’, ‘서현진 디션’ 등의 말이 온라인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서현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수재의 과거가 밝혀지는 한기택(전재홍)과의 대면부터 최태국(허준호)에게 700억을 요구하며 이어지는 5부 엔딩 시퀀스를 꼽았다.

“실제로 하루에 다 같이 찍기도 했고 씬 수로는 많지 않았지만 찍고 나서 기가 다 소진됐던 신(scene)이다. 그만큼 집중도도 높았고 잘 나온 장면 같이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서현진은 오수재는 중 극 악랄한 캐

릭터인 ‘최태국’을 연기한 중견배우 허준호와 대결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열연을 선보였다.

그는 “허준호 선배님과 김창환 선배님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다. 늘 선배님들께는 꼭 배우는 부분이 있다. 연기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연기를 대하는 태도도. 그에 반해 후배분들께는 더 살갑지 못했던 것 같아 좀 미안하고, 더 좋은 현장에서 많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왜 오수재인가’를 사랑한 시청자들에게는 “현장을 떠나는 순간 이미 작품은 제 것이 아니라 보시는 분들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현진의 배우로서 목표는 여전히 확고하다. “생각과 말을 적게, 고민은 많게, 사고는 유연하게 그리고 늘 유머가 함께. 말하고 보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정일우·권유리, 두 번째 호흡 어떨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후속, 다음달 첫 방송 예정



배우 정일우와 그룹 소녀시대 겸 배우 권유리

리가 ENA 새 수목드라마 ‘굿잡’으로 두 번째 호흡을 맞춘다.

‘굿잡’은 초재벌 탐정 ‘은선우(정일우 분)’와 초시력 능력자 ‘돈세라(권유리 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남녀가 펼치는 히어로로맨틱(Hero+Romantic) 수사극이다.

22일 공개된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정일우·권유리·음문식·송상은을 비롯한 배우들과 제작진이 함께 자리했다.

먼저 정일우는 타고난 추리력에 약간의 인간미 결핍을 제외하곤 다 가진 재벌남 ‘은선우’로 분한다. 그는 그룹 회장과 탐정을 넘나드는 은선우의 이중생활을 섬세한 연기력으로 표현해 현장에 모인 모두의 물입도를 이끌어냈다.

권유리는 초시력을 가진 프로 N잡러 ‘돈세라’를 맡는다. 1km 이상 떨어진 곳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이를 숨기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무엇보다 지난해 드라마 ‘보쌈-운명을 훔치다’ 이후 두 번째로 만난 정일우와 권유리의 케미스트리가 시선을 모은다.

한편 ‘굿잡’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후속으로 8월 중 첫 방송될 예정이다. 올레 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seezn)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에이티즈, 첫 밀리언셀러 예고…새앨범 선주문 110만장

‘더 월드 에피소드 1 : 무브먼트’는 오는 29일 발매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첫 ‘밀리언셀러’를 예고했다.

24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의 새 앨범 ‘더 월드 에피소드 1 : 무브먼트’의

선주문량이 110만 장을 돌파했다.

지난해 미니 7집 ‘제로 : 피버 파트 3(ZERO : FEVER Part.3)’가 선주문량 81만 장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에이티즈 첫 밀리언셀러 앨범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이티즈의 이번 앨범은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 신나라레코드, G마켓, 글로벌 인더파크 등 여러 음반 판매 사이트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20일 공개한 타이틀곡 ‘게릴라(Guerrilla)’ 퍼포먼스 프리뷰 영상은 총 30개국에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랭크됐다.

이번 음반엔 ‘게릴라’를 포함해 ‘프로파간다(Propaganda)’, ‘섹터 1(Sector 1)’, ‘사이버펑크(Cyberpunk)’, ‘더 링(The Ring)’, ‘WDIG(Where Do I Go)’, ‘뉴 월드(New World)’ 등 총 7곡이 실린다.

에이티즈는 K팝 차세대 주자로 통한다. 앞서 2022 아레나급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비기닝 오브 디 엔드(THE FELLOWSHIP : BEGINNING OF THE END)’를 통해 전 세계의 18만 팬들과 교감했다.

‘더 월드 에피소드 1 : 무브먼트’는 오는 29일 오후 1시에 발매된다.

선예, 솔로 컴백…‘제뉴인’ 메들리 영상 공개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솔로 앨범 발매 초입기에 들어갔다.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2일 공식 SNS를 통해 선예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제뉴인(Genuine)’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우아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선예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5개 트랙의 하이라이트 음원도 담겼다.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제뉴인’을 시작으로, ‘저스트 어 댄서(Just A Dancer)’, ‘글래스 하트(Glass Heart)’, ‘나우 아이 플라잉(Now I Fly)’, ‘베스트 핑(Best Thing)’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신보를 예고했다. 타이틀곡 ‘저스트 어 댄서’는 리드미컬한 리



듬에 특유의 베이스라인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 댄스곡이다. 예술가로서의 본능과 자신감 있는 모습, 주도적인 ‘나다운 춤을 추겠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앨범 ‘제뉴인’은 오는 26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스케치북’ 유희열 표절시비와 함께 1.2%로 종영…600회로 마무리

2009년 4월24일 첫 방송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MC를 맡은 KBS 2TV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시청률 1%대로 종영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유희열의 스케치북’ 최종회인 600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1.2%를 기록했다. ‘우리들의 여름날’이라는 주제로 폴킴, 멜로망스, 심센치, 헤이즈, 데이브레이크, 효정, 승희, 김중국, 씨스타, 거미 등이 출연했다.

이번 달 들어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지난 1일 597회 시청률은 0.6%, 8일 598회 시청률은 0.9%, 15일 시청률은 0.6%였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2009년 4월24일 첫 방송했다. 13년3개월 만에 프로그램이 정리됐다.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돼 그간 49만4650명의 관객이 현장을 찾았다.

사실 갑작스런 마무리다. 지난달 유희열의 일부 곡에 대한 표절 시비가 제기됐다. 이후 각종 의혹이 무분별하게 퍼지자 그는 “긴 시간 동안 저와 관련한 논란으로 피로감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하차의 뜻을 전했다.

유희열은 이날 ‘스케치북’ 마지막 방송에서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음악인들이 꿈꾸는 소중한 음악 라이브 토크쇼가 많이 없다. 이런 소중한 무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표절 주장에 대해선 방송에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희열 표절 시비와 별개로 ‘스케치북’의 폐지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이 업계에 많다. 인디 음악가들이 출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상파 음악방송이었다. 이로 인해 음악 솔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물론 안테나가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되고 유희열이 ‘싱어게인’ ‘슈퍼밴드’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도맡아서 음악 권력화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유희열은 MC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인디 뮤지션에게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꿈의 무대였고, 주류 가수들에게도 꼭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유희열이 다른 음악 예능 활동보다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창작 작업에 더 열중했으면 최근과 같은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



고 음악계에는 아쉬워하고 있다. 당분간 이어질 KBS 심야 음악 방송에 대한 아쉬움도 시청자들 사이에서 크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노영심의 작은음악회’(1992-1994), ‘이문세쇼’(1995-1996), ‘이소라의 프로포즈’(1996-2002), ‘윤도현의 러브레터’(2002-2008), ‘이하나의 페퍼민트’(2008-2009)의 명맥을 이어왔다.